



Lim Ok-Sang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

가나아트갤러리 기획초대전
임옥상 | Lim Ok-Sang

2002. 9. 25(수) - 10. 7(월)
인사아트센터 제3전시장 및 특별전시장
주최 | 가나아트갤러리 · 협찬 | (주)세브코리아

부서진 폭탄껍질의 실내악 - 임옥상 미술전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 에 부쳐

김 정 환 | 시인



내게 미술은 공간 속으로 공간을 심화하는, 즉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계 속으로 극복' 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예술 장르다. 물론 모든 예술 장르가 그렇지만 미술은 연극·영화보다 가시적으로, 공간·음향적으로 그렇고 음악이 무엇보다 시간·응축적으로 그렇다. 남한의 80년대 예술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민중미술은 (전시)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을 '공히' 최대화하는 동시에 천박화했고, 그러므로 민중운동의 퇴조에 따른 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의 '격앙스러운'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공간이 심화되지만, 동시에 추상·무조리화한다. 임옥상 미술은 '천박화'와 '추상화' 경향 양자에 대한 강력한 '예술적' 저항인 동시에, 당연히, '예술적이므로 정치적인', 회귀한 경우다. 임옥상의 걸작들은 미술이 '공간 속으로 심화' 하는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서야 하는, 가장 광범하고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그래서 예술적인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렇다. 그의 미술은 극좌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우경화 하는 '미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임옥상 미술은 적절하게 그리고, 당연히, 고통스런 경로를 통해 '철기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의식 혹은 투쟁은 예술가의 미적 전망을 제한하고 형식/내용 균형을 손상시키고 '혁명-유토피아적' 환영을 진부한 미학적 관습으로 복제, 자기 자신의 현실주의를 배반하기 십상이지만, 임옥상 미술은 다르다. 가장 '활동가적' (그의 '운동' 분야는 정말 폭넓어서, 환경에서 남북통일을 거쳐 궁극적인 세계평화 문제에까지 이른다.) '이면서 또한' 남한의 가장 세련된 장면 중 하나로, 현장과 생자로 부딪치는 육체의 팽팽한 근육이 어느새 저항정신과 해학, 그리고 조형미를 원숙하게 조화시킨 당대의 명품으로 전화되어있는 것이다. 그의 '땀' 시대(보리밭 연작)는 여러 겹 갈등의 시대였다. 자연과 문명의, 고향과 전쟁 기억의, 불안과 충동의,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열망과 경악의, '원(原) 색-형태'와 '형태 우선적인 색'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들은 (화해가 아니라) 죽음 웃음을 폭넓게 감당하는 오페라 부파(Buffa)의 미학으로 완숙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스테인레스와 고철 작품들에서 그는 더 '예술가적'이다. 그의 '포크와 나이프, 스푼' 스테인레스 작품들은 인간 문명에 대한 '빛나는-토하는' 비판('공치')이며 '그리고 또한' 예술=먹는 행위('매달린 물고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술한 생선을 먹어 치운 포크와 나이프, 스푼들을 '소재 혹은 매질'로 한 마리 생선을 형상화한다는 것. 주체와 대상의 역전, 내용과 형식의 역전, 먹는 것과 먹힌 것의 역전, 먹는 문화의 예술화, 즉 예술의 화-초범화가 아니라 화-초범의

예술화, 혹은 그 둘 사이 절묘한 균형 혹은 역전. 지느러미를 이루는 나이프, 비늘과 눈을 이루는 숟가락, 그리고 고생대 동물을 연상시키는 포크 이빨.... 이쯤 되면 우리는 미술의 색깔과 형상으로 세계를 '우선' 변혁하려는 예술가 정신의 치열한 내화가 마침내 대중문화, 아니 대중생활 문화, 아니 일상의 영역을 의미심장하게, 근본적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예술 장면에 달하게 된다. 반면, '큰 스푼'과 '포크'는 질적이 아니고 양적이다. 이것은 종이부조 중 〈세한도〉가 어느 정도 공간을 심화하는데 반해 9. 11 테러를 다룬 〈아메리칸 드림〉, II가 '소재적 표면'에 머무는 것과 같다.

남한 매항리 공군 사격장에 흩어진 미 제국주의 폭탄 껍질 고철 조각들로 만든 '아메리카 남근(=폭탄 탄두)' 연작들은 물론 미국의 고철 조각으로 미제의 아만과 참상을 드러내지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묘한 '홀어짐의 여백'이다. 남근(팔루스) 조각상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래 10만년이 넘는다. 철기시대는 언제? 임옥상의 팔루스들은 인간 형체를 이루는 조각(piece)과 조각(sculpture) 사이 야릇한 공간으로 그 선사 세월을 머금는다.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심오한 우스꽝스러움을 유발하면서 '반미(反美)'가 자칫 뜻할 수 있는 소재-주제주의를 문명비판의 차원으로, 그리고 인간실존의 부파 미학으로까지 끌어올린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토속성과 모더니티를 얼버무렸던 피카소와 사뭇 다른 방식이고, 보다 실천적이면서 미학적인 방식이다. 아, 정말 기묘한 15만년의 응축들. 그 응축이, 녹슨 고철이 발하는 전쟁 자체의 참혹한 험악함의 미학 자체를 유구한 희망과 전망력(展望力)의 형상으로 전화한다. 반면 스테인레스(스푼)와 고철(매항리 잔해물)을 합한 '철의 꿈' 연작은, 과감하지만 과도적이고 아직 '절충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든 그는 끝내 길을 열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시회의 절정은 폭탄 껍질들을 주축으로 만든 식탁, 식탁 의자, 티테이블,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 '최신식' 가구들이다. 길게 반쪽 난 매항리 폭탄의 육중한 금속성이 예술가의 손길을 받아 세련되고 미려한 고전적 단아의, 목성(木性)을 발하고 급기야 검고, 검을수록 색시한 고급 오디오 기기 '껍질'에 달하고(회의용 탁자), 웅근 박격포탄 껍질 4개가 여자의 날씬한 다리보다 양중맞은 균형을 상단 유리 속으로 내비친다(티테이블). 그렇다. 공간·응축의 미술이, 놀랍게도 폭탄 껍질을 매개로, 시간·응축의 실내악에 달하는 순간이고, 폭탄의 자본주의를, 놀랍게도 폭탄껍질을 매개로, 예술의 사회주의로 유인해내는 광경이다. 위 과정을 질적으로 종합한 결과인 이 작품들로 하여 우리는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자'는 사회주의적 구호의 구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Chamber music of the shattered bombshells-To Lim Ok-Sang Art Exhibition 'After Iron-Age'

Kim Cheong-Whan | poet



It is fascinating to me because it deepens spaces 'into'(not out of) spaces, so overcomes its limits 'into'(not out of) limits. Of course all arts-genres are so because so but art is more sibly, space-condensingly so than theatre or cinema, and music is more time-condensing than other arts-genres. As one of the leading arts-movements of 1980's South-Korea, Minjung(or populist) Art Movement maximized but at the same time shallowed 'both' (exhibition)spaces 'and' political influence and, was to suffer the 'astonished' contraction of both after the retrogression of Minjung Movement in general. And, for the time being, spaces are deepening but abstractive and absurdist. Artist Lim's works are 'artistic' assistance against these two tendencies and at the same time, deserved, but rare case of 'political because artistic'. Lim's masterpieces confirms art as 'both' into-space deepening 'and' most extensive, comprehensive, fundamental avant-garde world-reforming, therefore 'artistic' genre. Yes. His works heal 'art-disease' of turn rightist against extreme leftist.

Methinks Lim's painting & sculpture art has arrived 'age of iron', appropriately and, of course, by the painful road. In most case social consciousness or struggle limits artists aesthetic vision and damages form/content balance and falls into revolutionist-utopian illusion of hackneyed conventionality, betraying realism of his own. Lim's art is not the case. He is most activist(his concern is wide, from environmental over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to ultimate World Peace) 'and also' one of the finest artist of South Korea. His artworks are made in the scene of action but, instead of ending as performance or stiffening into dead still-life, metamorphoses struggles muscle into flexible, humorous, formal-beauty text of modern classic. His 'earth' age(Barley Field series) was that of multiple conflicts,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heimat and war memory, anxiety and impulse, realist and modernist, yearning and consternation, 'primary colour-form' and 'form-primary colour' and that conflicts matured into (not reconciliation) deep, wide coverage of death-laughter, aesthetics of Opera Buffa. Then, so, he is more of 'artist' in creating stainless and old iron work. His 'forks and knife, spoon' stainless works are shining-vomitting criticism of human culture(mackerel) 'and also'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art=eating('a hanged fish').

Forks and knives, and spoons that have forked, knifed, and spooned so many fishes makes up a fish. Reversal of eaten and eating, subject and object, content and form. 'Artization' of eating culture, not 'sushization' of art but artization of sushi or exquisite balance/reversal between two. Fin-knives, scale-spoon-eyes, and paleozoic creature's teeth-forks. We are witnessing innermost spirit of avant-

garde artist who priorily reforms world with colours and (content-overcoming)forms at last forking, knifing, spooning mass culture, mass life, everydayness of everyday meaningfully and fundamentally. On the other hand, 'Big spoon' and 'Fork' are not qualitative, only quantitative. The same case occurs in paper-relief works. 'Sehando' more or less deepens (into) space, but 'American dream' I, II about 9.11 terror remain on 'material surface'.

'American Phallus(=warhead)' series are made of junks of U. S. imperialism bomb-shells scattered in South Korea Mae-Hyang-Ree air-force rifle range. These sculptures of junk pieces of course muckrake barbaric disaster caused by U. S. imperialism. But, methinks, more important aspect is a kind of, exquisite margin of scatteredness. (Pre-)History of phallus sculpture covers more than one hundred-thousand years. And age of iron? Lim's Phallus series entertain prehistory time and tide in those queer space between 'pieces' and 'sculpture' that make up human figure. And depth & gravity-weight of that prehistory time & tide induces profound buffoonery that raises anti-USA subject to dimension of culture criticism, and higher to Buffa-Aesthetics of human existence. This method is different from that of Picasso, who confused and compromised african localities and modernity. Lims way is more praxis-orthodox, and more aesthetic. O, really curious condensations of 150, 000 years. That condensation transforms wretched-ragged aesthetics of war itself into forms of everlasting hope and vision-power. On the other hand, 'Dream of iron' series are, as stainless(spoons) 'plus' junks(Mae-Hyang-Ree remains), bold but transitional, and remain eclectic. Of course he will open his road even this way but.

However, climaxes of this exhibition are bombshells composing cores of 'ultra-modern' furniture of 'eating' table and chairs, tea-table, meeting table and chairs, etc. Heavy 'metallic' of long halves of a air-to-earth missile warhead emanate through warm hands of an artist refined, magnificent and graceful, elegant 'woodness' of classic, and in the end attain 'more black, sexy' of the highest audio equipment - 'shells'(meeting table), balance of four unbroken mortar shells seen below glass-sheet are cute, prettier than sheen-slender legs of women. Yes. At this moment, surprisingly through bombshells, space-condensing art attains time-condensing chamber music, and at this spectacles, surprisingly through bombshells, capitalism of bombs is attracted into socialism of art. With this chamber music of bombshells as qualitative synthesis-result of above-mentioned processes, we can overcome sloganism of socialist slogan 'Melt swords and guns into plowshares'.



3. 큰 스푼 스푼, 종장비 기어 | 높이 267cm, 스푼 지름 75cm | 2001

비영영사리, 기지 초

(나를 보라)

우리나라 전체에 흩어져 있는 기지초에 대한 이야기.
동북해. 의정부같은 내륙부에서 주둔하는 기지초에 있는
이제까지 같은 내비항로의 기지초에 있는, 단 내비항로에
방문하기 같은 폭격장 기지초에 있다. 용산의 비군기지
주변으로 방문한 것으로 있어 12경로에 방문자들은 사실
따라서 보면 기지초에, 넓은 의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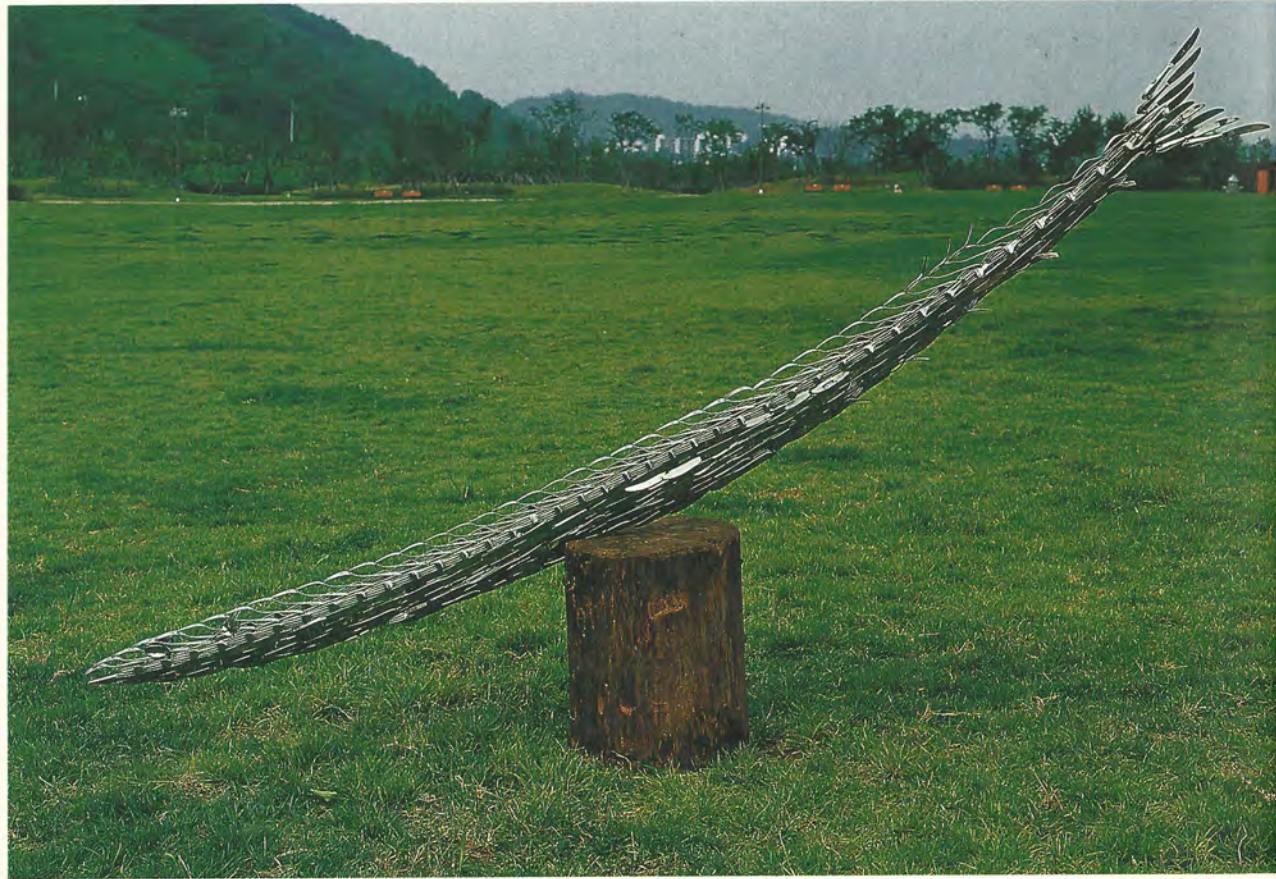
따라서 본래에 가위눌려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비영영이요 미국의 전진기지, 오세라. 감옥이라

해산-비전대를 알린다.

애버러지가 한쌍의 날개를 달고
내비항로에 비상하듯 국호의
처로방, 마음의 처로방을 걸어
자유의 기점비를 만드자.
살생의 임무로 한쌍을 생양로
폭탄을 폭어 새 임무를 주자.
대중사회의 일원인 자적증을 주자.
새생명을 주자.

이제





4. **꽂치** 스푼, 포크, 나이프 | 340×15×25cm | 2001

5. 매달린 물고기 스푼, 포크, 나이프 | 230 × 50 × 100cm | 2001

공헌함을 복에 보답을 받는다.

전함을 북에 보습을 받들듯, 폭탄파편을 모아
 북에서 **사람**을 받들듯. 모두 하나씩 나누어 가지
 씀다. 배항까지 비극을, 절망으로, 폭력을 북에
 치박한 땅을 길리락을 **사람**을 받들듯. 나무로
 새로 꽃으로 가꾸는 마음으로 갈아 새 생명을

복제인등을
공은수있게



(이것은 내 딸의 2남자 2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7~8개월이
정도로)





인간이 꿈을 꿀다. ^{인간이} 반물로 꿈을 꿀까. 물질로 꿈을 꿀 수 있는가?
 인간이 꿈을 갖는 데 있어 ^{인간이} 여불성이라든가 불공포라든가
 삼라만상 ^{인간이} 꿈꾸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인간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꿈을 꾸듯, 인간이 꿈을 통해 ^{인간이} 형식의 ^{인간이} 질방을
 꿈인 언어로, 극한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듯.

우주의 모든 것,
 꽃은 나뭇잎으로 번갈아
 풀내음이 물로 불로
 강으로 들로 개로 호로
 바람은 모두 꿈을 꿀다.
 비록 날의 실패라든가 ^{인간이} 하늘에서 ^{인간이} 실패한다
 그러나 그 때 ^{인간이} 인생의 꿈을 날개를 펼친다
 처도 처로 ^{인간이} 죽음의 ^{인간이} 망장 부하될지 몰라도 ^{인간이} 날개를 펼친다.
 꿈을 꿀다.

"군함을 복에 넣는 일만다"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라는 착상! 멋지다.

대항해 대공군 폭격기 유망에 하루에도 수백발씩
투하되는 폭탄들을 ²로아 ² 사살인공기를 농기구로 변신
시킨다.



The great American phallus의
개구는 그 자체의 상징성으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Great
American
phallus

미국이 거대한 음기

(Tom Wesslenang)
The great American Nude의 패러디.)

미국이 거대한 음기
자체.

폭탄의 형제애까지는 동물성리 기호성을 극대화한다.
모든 제목은 The Great phallus로 통일한다.



• 폭탄을 지지하는 역할이 고물이다.

고물(古物) 이미 한 번은 살고 다음 삶은
기대되는 존재. 이승과 저승 사이 즉
바다로에 있는 것. 자동화, 증강비밀 고물상에서
/ 관료 활동한다.



7. 철의 꿈 II | 고철, 스팀, 나이프 | 높이 170cm, 날개 길이 220cm | 2001

8. 철의 꿈 I | 고철, 스팀, 나이프 | 높이 130cm, 날개 길이 230cm | 2001

폭탄 파편도 고물이기는 바닷까지,
폭탄 즉 무기는 화가 가장 부정적인 행위인 것,
이를 2 반데데의 개인관다.

전쟁 → 평화
폭력 → 사랑
증오 → 화해
파괴 → 복원
죽음 → 살림



대항리에서
7번번에 반데데 복습의 다모티어
폭탄을 찾아 두어한다. 복습 반데데 본래의 철의
모습을 찾는다.

본래 3,000 평이었던 농심 이제 2,000 평이 남게
1000 평만 남았더라

폭탄은 지뢰로 갈라진다.





회의용 탁자 : 폭탄의 이미지를 형식적으로 전환(변신)한다.

식탁

Ten table

외과

간이외과

안락의자

거울

전명기구

각종 악세서리

전등에 있어

가장 단순하게,

재료를

유리, 알루미늄 (정구)에 따른

스테인리스 스틸, 레진으로

철 - 폭탄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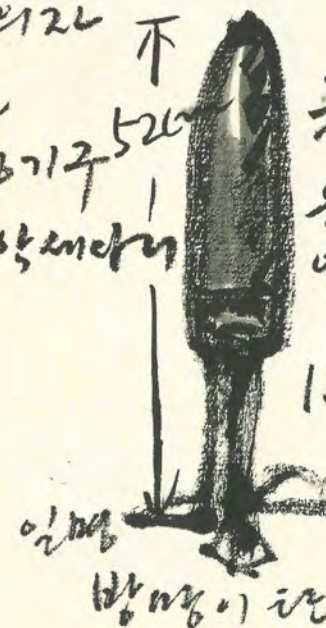
유리

알루미늄

12kg

폭탄에서
본래의 철로 되돌려다

가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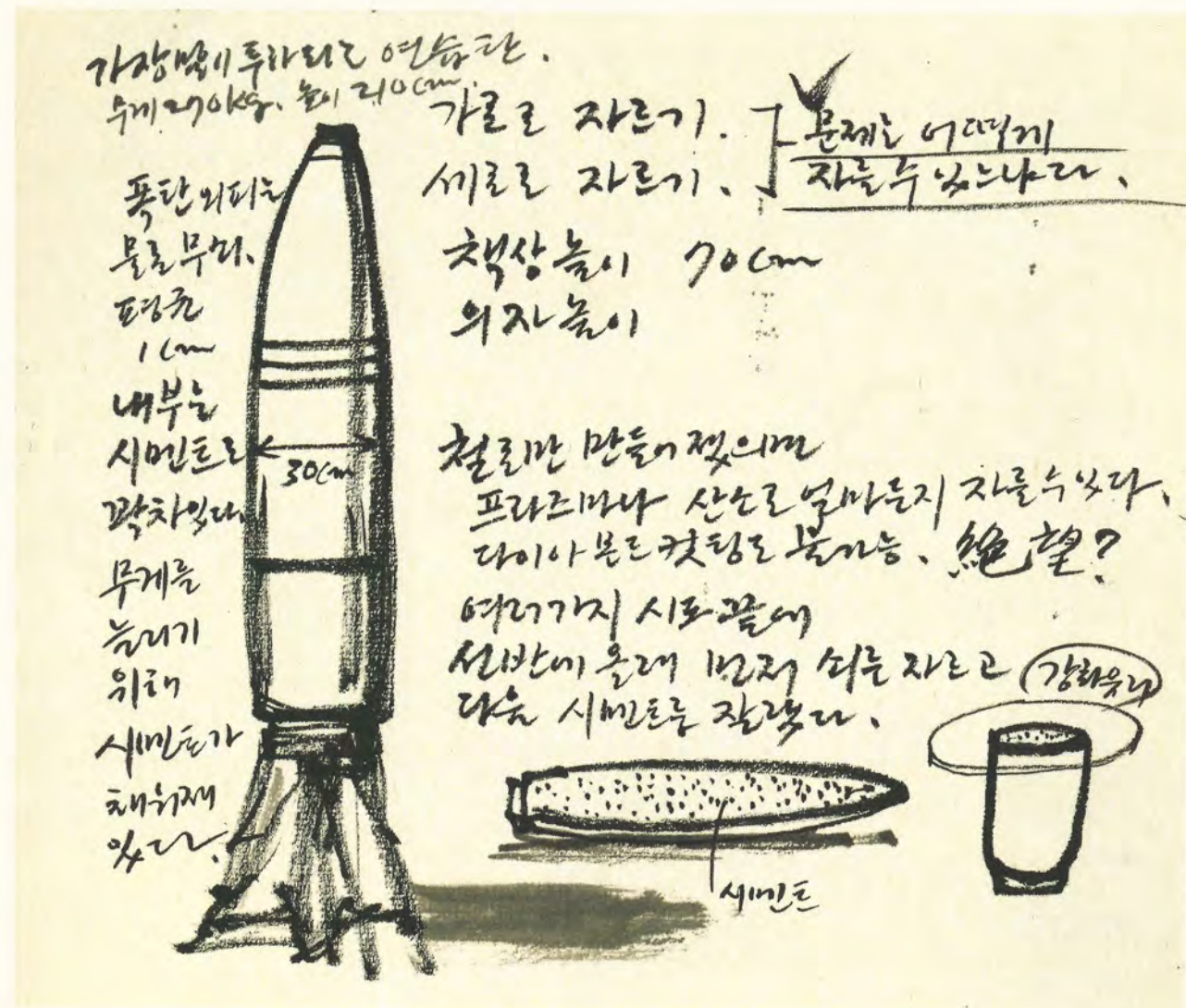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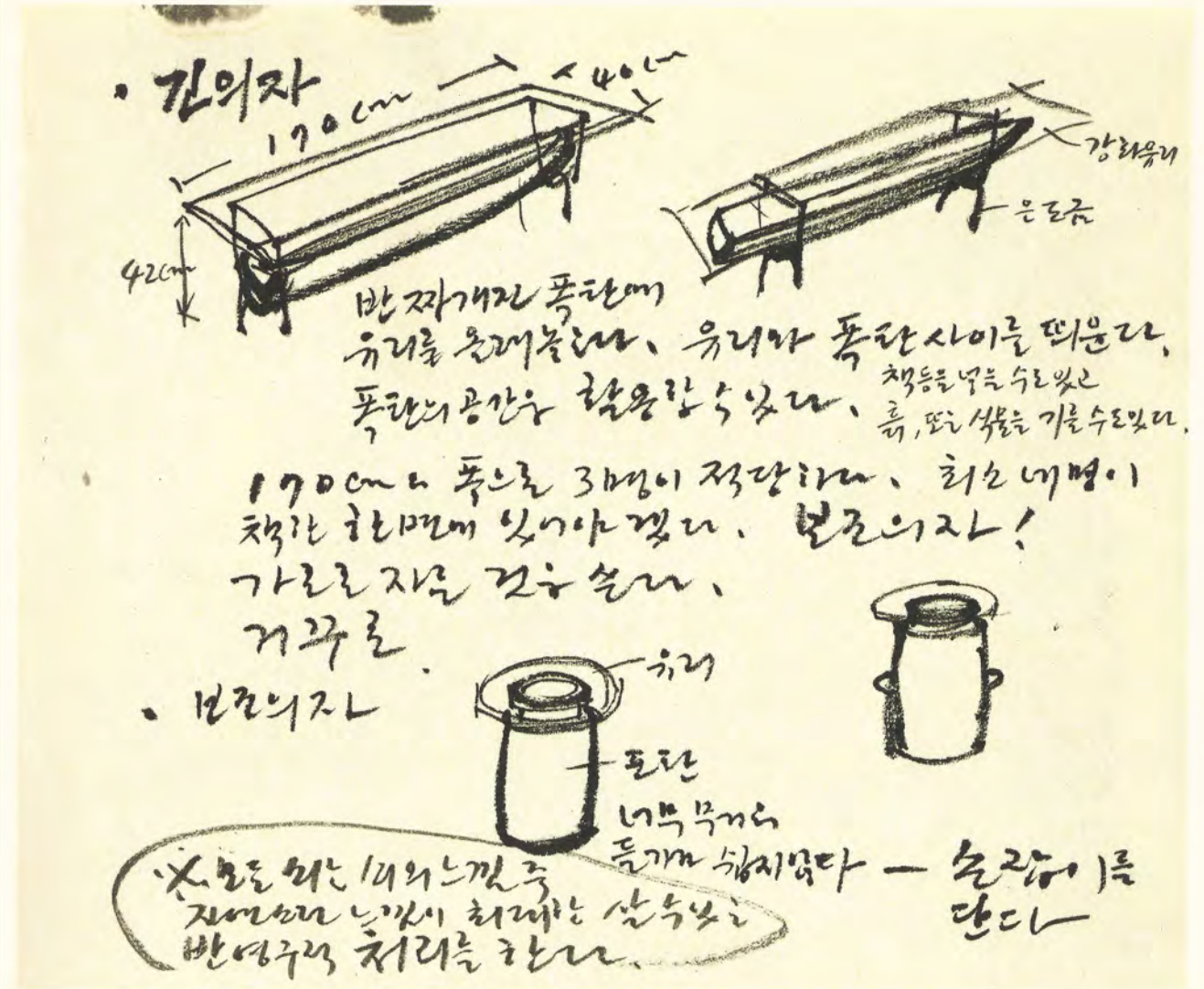


10. The Great American Phallus II 매향리 폭탄 잔해물 | 높이 88cm, 정면폭 37cm | 2001

11. The Great American Phallus III 매향리 폭탄 잔해물 | 높이 88cm, 정면폭 37cm | 2001

12. The Great American Phallus IV 매향리 폭탄 잔해물 | 높이 300cm, 측면폭 100cm, 정면폭 150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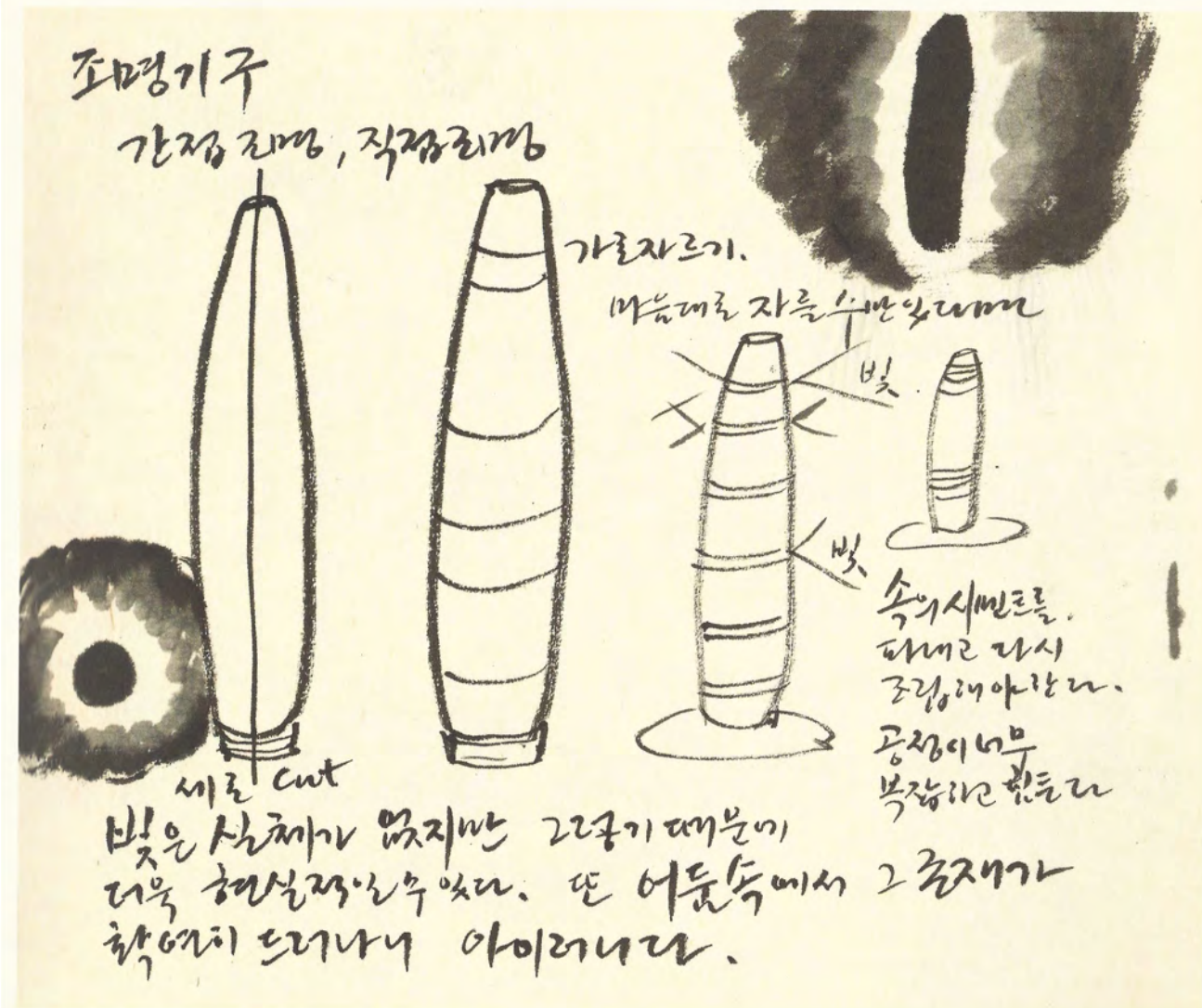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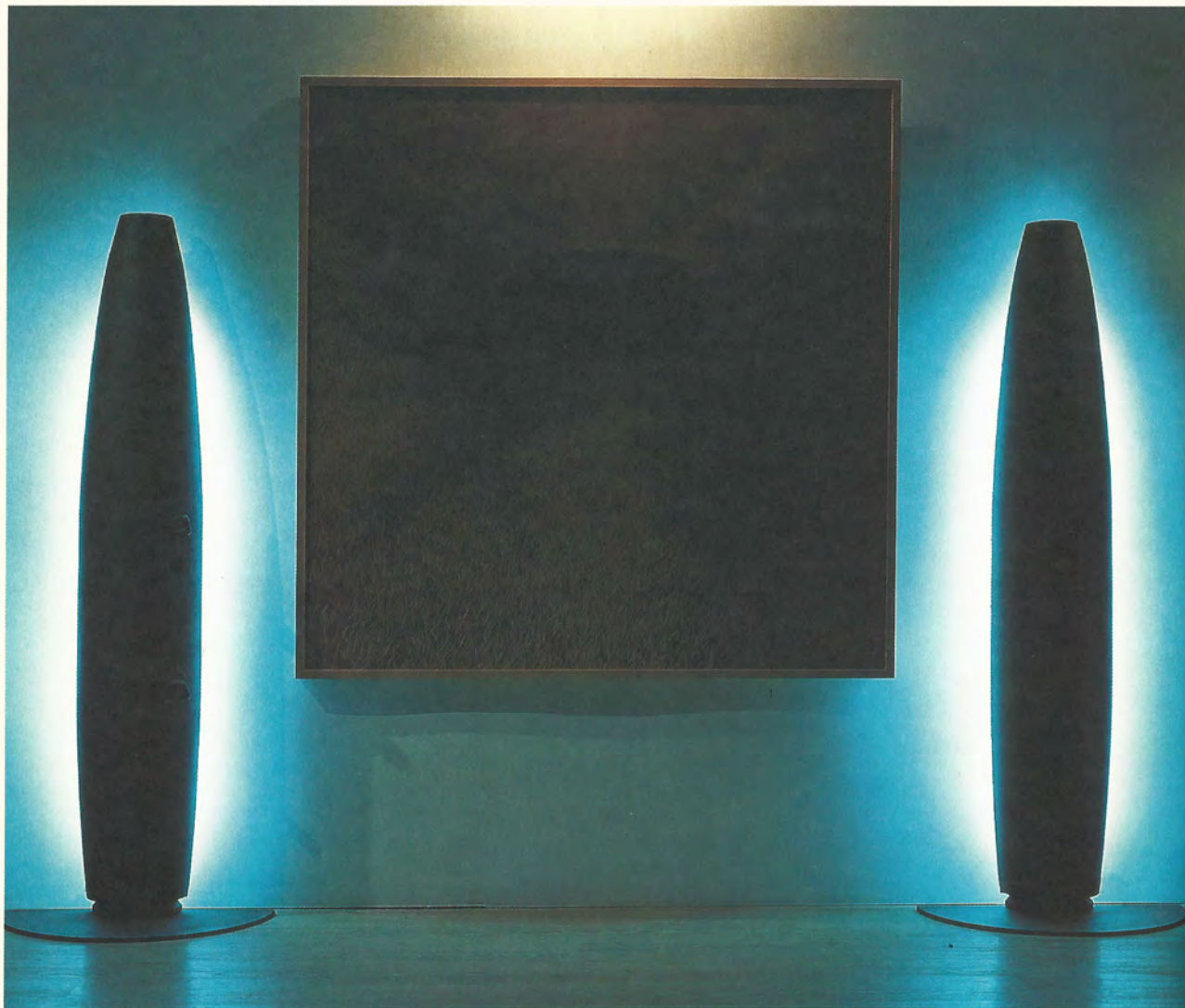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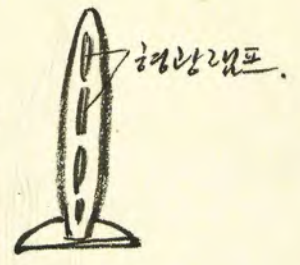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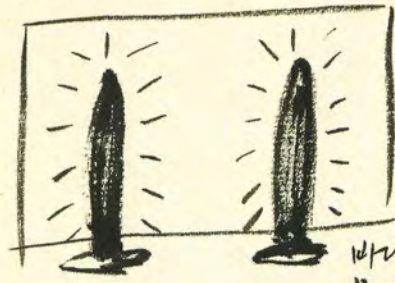
15. 회의용 탁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알루미늄, 강철, 유리 | 높이 70cm, 가로 90cm, 세로 210cm | 2002

회의용 의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알루미늄, 강철, 유리 | 높이 45cm, 가로 35.5cm, 세로 16.9cm | 2002

보조의자 매향리 폭탄 잔해물, 유리 | 높이 42.5cm, 지름 28.5cm |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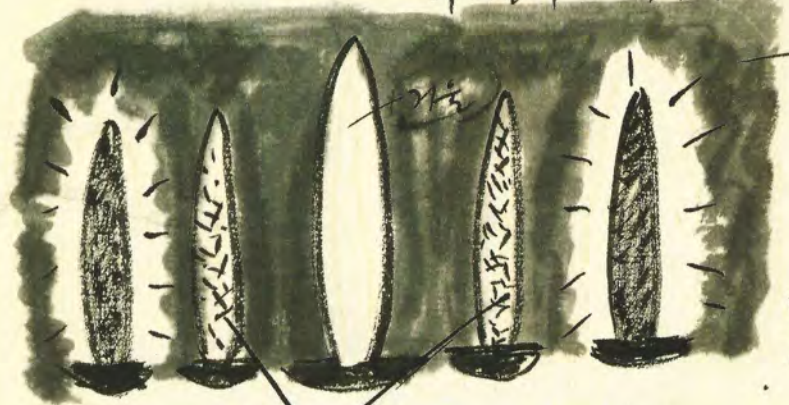
가장자리까지



기원출발
심주(구릿빛) : 한파의
늑을 벗기
보내
너무아름답



바람은 타워를 반으로 자른것과
부레를 지레로 수 있게 (100 이상, 200 이하)에 놓는다.



이작품이 마지막이
되어야겠다.

大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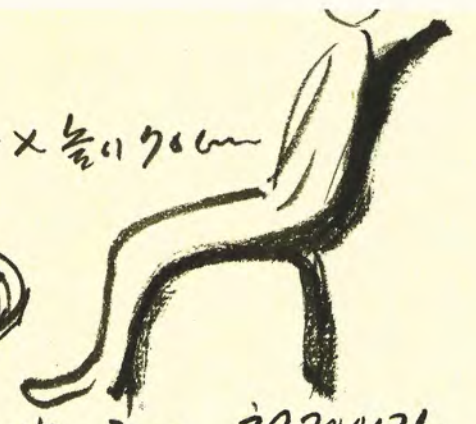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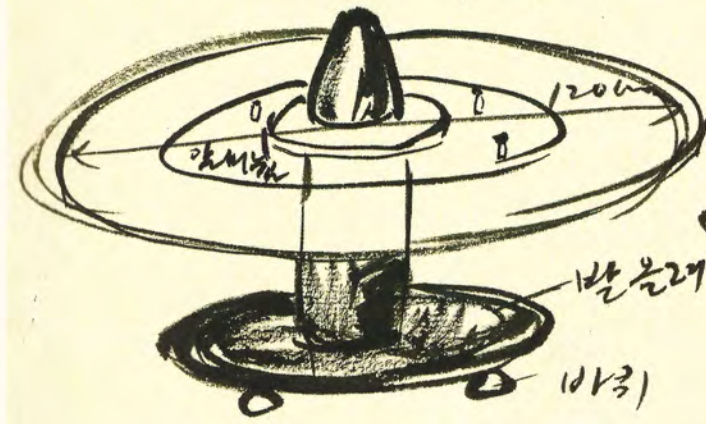
전쟁은 전쟁을 잉태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가을

폭력 줄로 (세로로 지면까지)

폭력은 내부를 기원 단종 한파로 채운다.
(폭력 속에 알려지지 않은 생명의 움직임, 정서적)

식각 (60cm)

지름 120cm x 높이 70cm



발은 내려놓기 줄에,

차로제 의자.

4개.
banding



각각에 부분에 순서로 꽃을 반듯이 놓는다. 혹은 꽃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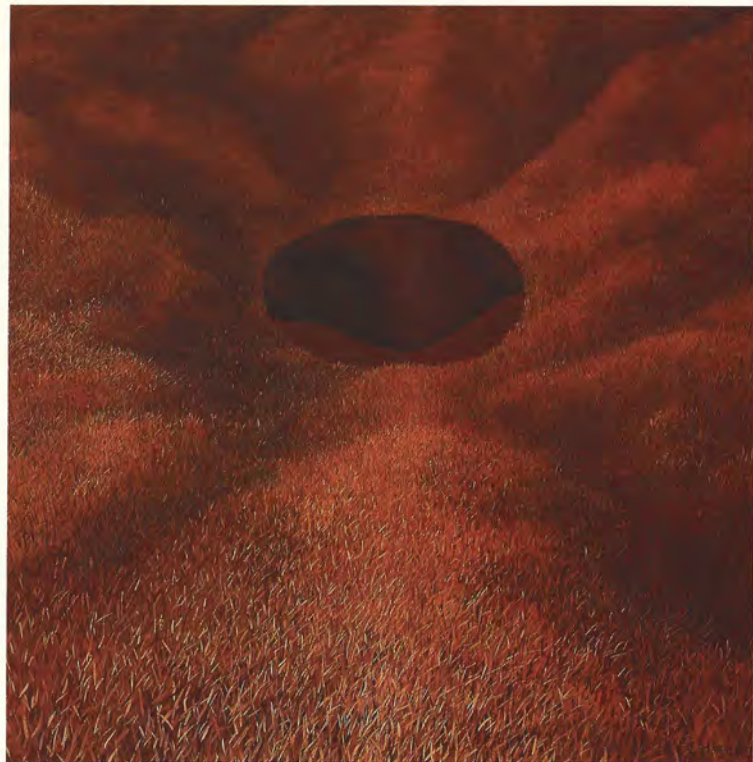


외가 꽃을 피운다.

순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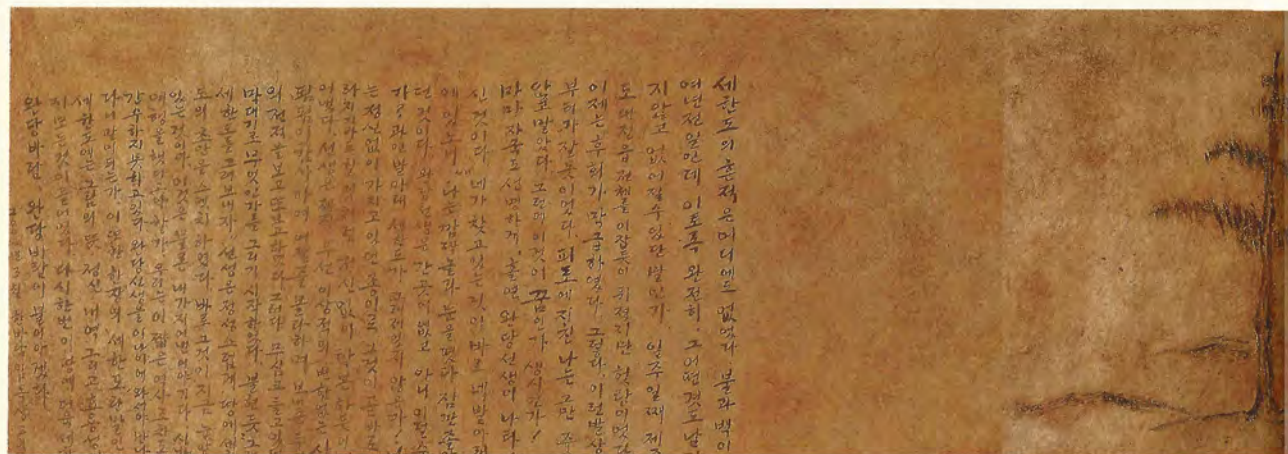
순서대로 꽃피우는
작업이다. 이때 붉은색, 노란색
그것은 어린이 말이 꽃을 피우면 그것의 몸 아픈대문으로
예배이다.



17. 오름 I 캔버스에 아크릴 | 130×130cm | 2002



18. 오름 II 캔버스에 아크릴 | 160×95cm | 2002



19. 세한도 종이 부조 | 270×100cm | 2002



20. 추사 김정희 종이 부조 | 78×80cm | 2002



21. American dream I | 종이 부조 | 237×136cm | 2002



22. American dream II | 종이 부조 | 237×136cm | 2002



임옥상 | Lim Ok-Sang

195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및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광주교육대학과 전주대학에서 재직했으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를 역임했다.

「십이월전」, 「제3그룹전」, 「현실과 발언 동인전」 등에 출품하였고, 1989년 Forum (독일 함부르크), 1993년 퀸즐랜드 트리엔날레(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호랑이의 꼬리전, 한국현대미술(중국 심양 노신미술관), 1997년 광주 비엔날레의 통일전에도 참가하였다. 1981년 첫 개인전(미술회관)을 시작으로 1988년 「아프리카현대사」(가나화랑), 1991년 「임옥상 회화 초대전」(호암갤러리), 1995년 「일어서는 땅」(가나화랑), 1997년 「저항의 정신」(뉴욕 얼터너티브 미술관), 2000년 「철의 시대 · 흙의 정신」(가나화랑) 등 총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광화문 지하철, 생산기술연구원, 정신대 역사관, 담배인삼공사, 전남 영암 구림마을, 경기도 화성 매항리,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에 공공 미술을 설치하였고, 1999년 이후 인사동과 여의도 공원 등지에서 대중미술 프로그램 〈당신도 예술가〉를 매주 일요일 실시해오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한솔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와 『벽없는 미술관』 등 2권의 저서를 도서출판 '생각의 나무'에서 펴냈다. 현재 가나 아틀리에에 입주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민족예술인총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Born in Buyeo, Chungnam province in 1950, L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me Graduate School, and Angoulême Art School in France. He taught in Kwangju Educational University and Chunju University, and serv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from 1993 to 1994.

Lim completed 「December Exhibition」, 「The 3rd Group Exhibition」, and 「Reality & Utterance」, and also exhibited in Forum Art Fair(Hamburg, Germany, 1989), Triennial Asia-Pacific Contemporary Art(Queensland, Australia, 1993), 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Shimyang, China, 1995), and Kwangju Biennale(1997). He also held a total of twelve solo exhibitions named 「Modern History of Africa」(Gana Art Gallery) from 1981 to 1988, Solo Exhibition at Hoam Gallery in 1991, 「Thrusting Earth」(Gana Art Gallery) in 1995, 「In the Spirit of Resistance」(Alternative Museum, New York) in 1997, and 「Age of Iron · Sound from Earth」(Gana Art Gallery) in 2000.

Lim executed several public art works at the Gwanghwamun subway statio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Historical Center for Comfort Women, Young Am-Gulim, Maehyang-ri-Kyungki province, and Suwon Worldcup Stadium. Since 1999, he has been conducting public art program called 〈You Can Be an Artist〉 at Insa-dong and Yeoui-do Park every Sundays.

His works are kept i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Hoam Art Museum, and Hansol Cultural Foundation. He also published two books titled 「Who Does Not Dream a Beautiful World」 and 「Art Museum Without a Wall」 through publisher 'Tree of Thought'. He currently resides in Gana Atelier to work and takes part in 'The Korean People's Artist Federation',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Citizens' Network for Cultural Reform',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SA art center

인사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88 Tel.02-736-1020 Fax.730-0466 www.ganaartgallery.com